

자동차

현대차, 13 개월 연속 미국 판매증가 기록

자동차/부품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02. 6454-4866
Joonsung.kim@meritz.co.kr

8월 미국 산업수요, 플러스 성장 전망 (Cox +6.5%, ALG +4.2% 전망, 이하 YoY)

분기 판매실적 발표를 결정한 미국 4개사 (GM, Ford, Chrysler, Tesla)를 제외한 8월 산업수요는 86.1만대 (+12%)로 두 달 연속 증가. 허리케인 영향으로 일부 신차수요 억제가 존재했으나, 양호한 경제지표 환경 지속과 노동절 할인 확대로 긍정적 판매실적 기록.

8월 영업일수는 28일로 전년동기 대비 +3.7% (+1일) 증가했으며, 8월 SAAR 1,650-1,680만대로 추정되고 있으며, 이는 전년동기 대비 -1-3%.

현대차 6.5만대 (+14%), 인센티브 \$2,693 (-9%)

13개월 연속 YoY 소매판매 증가, 10개월 연속 YoY 점유율 상승. 제네시스 판매회복 (+187%)과 SUV 판매호조 (+31%)로 판매 및 점유율 증가 실현.

11월 신차출시 앞둔 쏘나타 (-13%)가 감소했으나, 코나 (+34%), 투싼 (+21%), 펠리세이드 (5,115대, 판매 2개월차)와 같은 SUV 수요증가가 전체 판매증가 견인. SUV 판매비중 61%로 역대 최대치 기록했으며, 딜러 피드백은 수요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 중이기에 더 높은 수준의 재고확보 요구 중. 쏘나타 신차출시와 펠리세이드 증설을 통한 수입재고 확대를 통해 판매개선 지속 전망

기아차 6.1만대 (+13%), 인센티브 \$3,461 (-13%)

11개월 연속 YoY 소매판매 증가, 전월 소폭 하락했던 점유율 다시 플러스 성장 전환 (과거 12개월 중 11개월 점유율 상승). 노후 모델 판매부진 기록했으나, 스포티지 (+35%) 및 텔루라이드 (5,700대, 3월 판매 본격화) 등 SUV 판매호조로 점유율 개선 기록. 높은 인센티브 지급이 이루어지는 Sedan 재고 축소로 인센티브 또한 축소 기조 지속

현대/기아차 점유율 상승세 지속 중. 시장 전반의 인센티브 상승 국면에서도, 할인 폭을 줄여가며 판매증대를 기록 중인 점이 인상적. 양 사의 SUV 신차효과 여전히 초기 국면이며 노후 Sedan 모델 교체 또한 곧 개시. YoY 판매 및 점유율 개선 추이 지속 전망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9월 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9년 9월 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9월 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